

## C-25. 교정적 정출술과 외과적 정출술을 이용한 치관연장술의 증례보고

박세호, 한지영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치주과학교실

외상으로 인해 치은연하에 파절선이 생긴 경우, 치은연하에 우식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철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심미성이 요구되는 전치부에서는 치주조직의 보존과 심미성이라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발치를 하고 일반적인 보철치료를 하거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치아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관연장술을 동반한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치관연장술에는 골 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관막술, Intra-alveolar transplantation, 교정적 정출술, 그리고 외과적 정출술 등이 있다. 골 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관막술의 경우 생물학적 폭경을 형성해 주기 위해 주위 골조직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면 치아 동요도가 증가되고, 치근이 개부 병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치관-치근 비율이 부적절하게 되며, 인접치의 백악-법랑경계 부위가 노출되어 지각과민이 발생할 수 있고, 치간공극이 개방되어 치주건강과 심미성이 손상된다. 또한 인접치아와 치은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치아를 수술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미성이 중요시 되는 전치부에서는 교정적 정출술이나 intra-alveolar transplantation, 외과적 정출술 등의 술식을 시행하게 된다. Heithersay가 1973년 처음으로 도입한 교정적 정출술은 치은연의 부조화를 조정할 수 있고 치주질환에 의한 부착상실과 수직적 골 결손이 있는 깊은 치주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교정적 정출술 대신 외과적 정출술을 이용한 치관 연장술, intra-alveolar transplantation 등도 보고된 바 있다.

외상에 의해 파절된 치아와 치은 연하 우식으로 인하여 치관연장술이 필요한 증례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여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